

## 인도네시아 2019\*: 오른쪽으로의 선회?\*\*\*

이 지 혁\*\*\*

### 국문초록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정치의 ‘다이내믹’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다이내믹’하다는 단어가 갖는 긍정적인 함의와 달리 정치가 다이내믹하다는 것은 안정감이 부족하고 일정한 방향성이 없는, 즉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도네시아 정치는 다소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2019년 4월에 인도네시아는 소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한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제도적 민주주의의 공고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민주주의의 공고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종교적 관용의 축소와 정치의 보수화를 쉽게 목도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옴니버스 법안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친기업적인 정서가 강해지고 있다. 지난 1년 동안의 조코위 대통령의 행보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은 정치적 개혁을 열망했던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하나의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인도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2A3099176).

\*\* 부제목 ‘오른쪽의 선회?’는 정치적으로 보수를 의미하는 오른쪽과 수도를 자카르타의 오른쪽인 동부 칼리만탄으로 이전하는 것, 그리고 친기업적인 법률 개정을 모두 지칭하는 중의적 의미로 사용하였다.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leejihyouk@snu.ac.kr

네시아에서 일어난 중요한 이슈를 살펴보고 각각의 이슈가 갖는 정치경제적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막 집권 2기를 시작한 조코위 정부가 개혁과 안정,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전망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2019년 한 해 동안 조코위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행보는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주제어:** 선거, 정체성 정치, 보수화, 반부패법 개정, 형법 개정, 수도 이전, 옴니버스 법

## I. 들어가는 말

2019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 정치는 여러 차례의 소용돌이를 겪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 자카르타 포스트(the Jakarta Post)는 신문의 일면에 ‘정신없었던 해가 지나고 조용한 2020년을 기대함(After Hectic Year, Calm 2020 Expected)’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Andapita and Gorbiano 2019). 2019년은 인도네시아 정치의 ‘다이내믹’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다이내믹하다는 단어가 풍기는 긍정적인 의미와 달리 정치가 다이내믹하다는 것은 안정감이 부족하고 일정한 방향성이 없는, 즉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도네시아 정치는 다소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2019년 인도네시아는 소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한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제도적 민주주의의 공고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민주주의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종교적 관용의 축소와 정치의 보수화를 쉽게 목도할 수 있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이하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이 자카르타 주지사였을 때 러닝메이트였던 측근 아훅(Ahok)이 구

속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마루프 아민(Ma'ruf Amin)이라는 노(老) 종교지도자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고, 두 번의 대선 라이벌이자 선거 결과 불복으로 인도네시아 사회를 분열시켰던 프라보워(Prabowo Subianto)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다. 국회는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진 기구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칭찬받았던 반부패위원회(Komisi Pemberantasan Korupsi, 이하 KPK)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법조항을 형법에 추가하려 한다. 재선에 성공하고 바로 꺼내든 수도 이전 계획은 집권 2기 동안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미-중 무역 갈등, 세계 경기 침체, 주요 수출국의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의 외부적 악조건 속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5.02%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경제성장률 자체만을 보면 그리 나쁜 성적표가 아니지만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점과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많은 규제에 의해 주변국에 비해 투자처로서 매력 상실되고 있는 점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감소하고 ‘미성숙 단계의 탈공업화(premature disindustrialization)’가 가속화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박변순 2019). 이러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법률들을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옴니버스 법(omnibus law)을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의 일관성을 높이고,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세 규정을 완화해 궁극적으로는 투자 환경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중요한 이슈를 정치 및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각각의 이슈가 갖는 정치 경제적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막 집권 2기를 시작한 조코위 정부가 개혁과 안정,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이라는 과

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전망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2019년 한 해 동안 조코위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행보는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 II. 2019년 인도네시아 정치

### 1. 하루에 치러진 가장 복잡한 선거

4월 17일 선거에서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유권자는 대통령, 전국구 국회의원(DPR, Dewan Perwakilan Rakyat), 지역대표 국회의원(DPD, Dewan Perwakilan Daerah),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DPRD, Dewan Perwakilan Rakyat Daerah)을 같은 날 선출했다. 약 2만여 개의 선출직에 24만 5천 명의 후보자가 등록했으며, 약 1억 9천 3백만 유권자가 80만 개가 넘는 투표소에서 5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서 (1) 대통령, (2) 전국구 국회의원(575명), (3) 지역대표 국회의원(136명), (4) 주의회 의원(2,207명), (5) 시·도의회의원(17,610명)을 선출했다. 본래 2019년 4월 선거 이전까지는 총선과 대선은 5년에 한 번씩 같은 해 다른 시기에 치러졌지만, 2017년에 만들어진 선거통합법<sup>1)</sup>에 의해 2019년 4월 선거부터 대선과 총선을 같은 날에 실시하게 되었다.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주된 이유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선거 비용을 줄이는 것과 선거 참여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호주의 한 싱크 탱크(The Lowy Institute)의 표현에 따르면 4월 선거는 “역사상 하루에 치러진 가장 복잡한 선거(one of the most complicated single-day elections in global history)”였다(BBC News 2019/04/12).

---

1)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17 Tentang Pemilihan Umum.

(1) 선거 결과와 대선 불복

5년 전 대선의 재탕이라는 말이 나왔던 4월 선거에서 이번은 없었다. 조코위·마루프 아민 후보는 빠라보워·산디아가 우노(Sandiaga Uno) 후보보다 11% 많은 표를 얻어 승리했다(2014년 대선 5.2% 차이). 조코위·마루프 아민 후보는 2014년 대선과 비교하여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지난 대선 때보다 득표율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골까르당(Golkar)과 통일개발당(PPP)으로부터의 지지와 5년 전에는 분열되었던 NU(Nahdlatul Ulama)로부터 단합된 지지를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 비해 2.3%의 표를 더 받는데 그쳤다. 하지만 인구가 많은 중부 및 동부 자바에서 많은 득표를 했으며, 5년이 지나는 동안 새롭게 유권자에 합류한 젊은 층으로부터 70% 이상의 표를 얻었다. 반대로 공고한 지지층이 있었지만 지지층의 외연 확대에 실패한 빠라보워·산디아가 우노 후보는 지난 대선에 비해 득표율이 2.3% 감소했다(Lane 2019).

<표 1> 2019년 4월 17일 투표 결과

	2019년		2014년		증감	
총 유효 득표	154,257,601		133,574,277		+20,683,324	
조코위- 마루프 아민	55.50%	85,607,362	53.15%	70,997,850	+2.35%	+14,609,512
빠라보워- 산디아가 우노	44.50%	68,650,239	46.85%	62,576,444	-2.35%	+6,073,795
차이	11%	16,657,123	5.2%	8,421,406		

출처: Lane 2019.

&lt;표 2&gt; 원내 진입에 성공한 정당의 득표율 및 의석수

정당	지도자	%	의석수	증감(전년대비)
PDI-P	Megawati Sukarnoputri	19.33	128	+19
Gerindra	Prabowo Subianto	12.57	78	+5
Golkar	Airlangga Hartarto	12.31	85	-6
PKB	Muhaimin Iskandar	9.69	58	+11
Nasdem	Surya Paloh	9.05	59	+23
PKS	Sohibul Iman	8.21	50	+10
Demokrat	Susilo Bambang Yudhoyono	7.77	54	-7
PAN	Zulkifli Hasan	6.84	44	-4
PPP	Suharso Monoarfa	4.52	19	-20

출처: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회색은 조코위 후보 지지 정당, 흰색은 빠라보위 후보 지지 정당임.

총선에는 16개의 전국구 정당과 4개의 아체(Aceh) 특별자치주 지역정당이 참여했다. 전국구 정당 중 10개의 정당(원내 정당 6개, 원외 정당 4개)이 조코위·마루프 아민 후보를 지지하였고, 6개의 정당(원내 정당 5개, 원외 정당 1개)이 빠라보위·산디아가 우노 후보를 지지하였다. 총선에서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봉쇄조항(threshold)인 4%를 확보한 정당은 총 9개의 정당이고(<표 2> 참조), 총선에서 4%보다 낮은 지지율을 얻어 원내 진입에 실패한 정당으로는 페린도당(Perindo), 연대당(PSI), 하누라당(Hanura), 월성당(PBB), 통합정의당(PKPI), 복무당(Berkarya), 가루다당(Garuda)이 있다.

공식 선거 결과가 발표된 5월 23일 빠라보위는 선관위(KPU)가 발표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고, 헌법의 규정 내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조코위 선거캠프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규모 불법 행위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면서 5월 24일 헌법재판소에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6월 27일에 9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9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은 빠라보위 측의 주장을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했다(Lamb 2019). 사실 빠라보위의 대선 불복은 공식 발표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

다. 그는 선거를 치르고 이들이 지난 4월 19일 조꼬위·마루프 아민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과 함께 자신의 자택 앞에서 대선 승리 기념식을 열었다. 빠라보위의 일부 지지자들은 대선 당일부터 빠라보위 대통령을 외치며 표본조사는 거짓이고, 재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불복 시위는 이를 진압하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을 동반했는데, 빠라보위 지지자들은 화염병과 돌, 폭죽 등을 던지며 경찰과 대치했다. 물리적 충돌로 인해 6명의 사망자와 약 2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대선 불복은 선거로 이미 분열된 인도네시아 사회를 진영에 따라 더욱 적대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 (2) 대선 및 총선 결과 분석

### 1) 대선 분석

2019년 대선은 2014년 대선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 선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도 많이 발견된다. 2014년도에 대중의 힘을 등에 업고 ‘조꼬위 현상’을 일으키며 당선되었던 조꼬위 대통령은, 2019년 대선에서는 신선하고 개혁적인 지도자의 이미지보다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선거 공학적인 방법에 의지했다. 상대방의 정체성 정치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지지자들의 일부가 이탈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색채가 농후한 종교지도자를 부통령으로 지명했고, 이는 결국 성공한 전략으로 판명 났다. 반면 젊은 사업가이자 자카르타 부주지사인 산디아가 우노(Sandiaga Uno)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함으로써 친기업적이고 젊은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했던 빠라보위는 여러 가지 구설수와 자신의 진영에서 만들어낸 가짜 뉴스에 발목이 잡히면서, 2014년 대선과 달리 박빙의 승부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은 지난 2017년 자카르

타 주지사 선거 때부터 강하게 대두된 정체성 정치의 강화와 이러한 정체성이 지역 및 종교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이지혁 2018). 정체성 정치로 인해 정치적 이념의 차이나 공약은 선거에서 큰 변수가 되지 못했다. 기실 두 후보의 정치적 배경과 스타일은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선거 기간 동안 보여준 공약이나 정책면에서 두 후보는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TV 대선토론에서 현역 대통령인 조꼬위 후보는 자신의 업적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빠라보위 후보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부인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자세를 취했다. 반면 빠라보위는 통계자료를 인용하면서 현 인도네시아의 상황이 매우 부정적이고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멸(punah)’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긍정’과 ‘부정’이라는 수사적 차이는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두 후보의 공약에 큰 차이는 없었다(Lane 2019).

중소도시 사업가 출신의 조꼬위 대통령과 정치 명문가 출신의 퇴역 군인 장성으로서 카리스마 넘치는 빠라보위는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누가 더 무슬림 후보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후자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더 이슬람적인 후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이슬람 후보로서 부족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선거 운동은 서로 신앙적으로 더 보수적임을 증명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공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라보위의 공격은 날카롭지 못했다. 싱가포르의 싱크탱크인 ‘ISEAS-Yusof Ishak Institute’의 연구원 마데 수프리아뜨마(Made Supriatma)는 이번 선거를 ‘자유시장주의자로서 경제정책에 별 차별성이 없는 두 후보가 정체성의 정치, 즉 누가 더 이슬람 보수주의자인가를 두고 경쟁한 오른쪽으로의 질주’라고 평가했다(Nation Thailand 2019/04/21).

이번 선거에서 지역과 종교적 성향에 따른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조꼬위는 34개의 주 중 21개의 주에서 승리했다. 조꼬위 후보는 인구가 많은 중부 자바와 동부 자바주에서 각각 77.2%와 67%의 득표를 했으며, 발리와 파푸아에서는 각각 91%와 90.7%를, 그리고 동누사똥가라에서 88.6%의 득표를 기록했다. 반면 아체, 서부자바, 반똥(Banten) 등의 강성 이슬람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에서는 뿌라보워보다 낮은 득표를 했다. 뿌라보워는 13개의 주에서 조꼬위에 앞섰는데, 서부 수마트라주(85.9%)와 아체주(85.6%)에서 큰 표를 획득했다(Chan 2019). 자바와 외곽 도서지역(Outer Islands) 간의 지역·문화적 양극화(geo-cultural polarization)도 분명하게 나타났다(Lane 2019). 이번 선거 결과와 인도네시아 인구센서스를 종합하여 분석을 시도한 코넬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인 페핀스키(Thomas Pepinski 2019)의 분석을 인용하자면, 비무슬림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kecamatan 단위) 중 단 한곳에서도 뿌라보워가 과반 이상의 표를 얻은 지역은 없다. 한편 무슬림 인구가 50%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지역에서 조꼬위 후보의 득표가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슬림 인구가 80%가 넘는 자바 지역에서 자바인의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꼬위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이 분명하게 나타났고, 반대로 자바인이 적은 지역에서는 양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가 나타났다.

종교지도자를 부통령 후보자로 선정함으로써 정체성 정치에 나름 잘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슬람 강성지역에서 조꼬위의 득표가 낮은 것과 자바 및 비-자바인 사이의 투표 성향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데에는 1950년대 후반 이슬람 국가 건설을 희망했던 강성 무슬림과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던 수카르노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sup>2)</sup>, 그리고 순다인들의 자바인들에 대한 역사적 라이벌 의식

2) 네덜란드로부터 인도네시아가 독립했을 때 강성 무슬림들은 세속주의 국가가 아닌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기를 원했고, 또 다른 한 세력인 공산주의자들은 마르크시즘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총선 분석

총선이 대선과 동일한 날짜에 치러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회의 원 후보에게는 큰 관심이 쏠리지 않았다. 후보들도 선거 운동 동안 자신의 공약을 홍보하기 보다는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서지원·김형준 2018). 결과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했던 정당들은 ‘편승 효과(coattail effect)’를 누렸다(Yew-Foong and Supriatma and Dewayanti and Hu 2019). 대선의 핵심 이슈인 정치적 양극화와 정체성 정치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4월 총선은 기존 정당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소위 민족주의 정당으로 분류되는 투쟁민주당(19.33%), 거린드라당(12.57%), 골까르당(12.31%)이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했고, 이슬람 정당으로 분류되는 정당들의 득표율은 2014년 총선과 비교해서 1.4% 증가하는데 그쳤다. 총 16개의 정당 중 9개 정당이 4%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원내 진입에 성공한 반면, 원내 정당이었던 하누라당과 신생정당을 포함한 8개 정당은 4% 이상의 득표에 실패했다.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당 총재가 부패혐의로 구속된 통일개발당(PPP)은 4.52%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가까스로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총선 결과에서 몇 가지 주목할 점을 짚어보면, 우선 2014년 총선

---

에 바탕을 둔 국가를 세우기를 원했다. 하지만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Sukarno)는 뻔짜실라를 앞세워 어느 쪽도 아닌 세속주의 국가를 표방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슬람 국가가 건설되지 않자 수마트라 중부 지역의 신앙심이 깊은 미낭까바우 사람들은 1958년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신들의 정부(PRR)를 수립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뿌라보위의 아버지였던 수미뜨로(Soemitro Djojohadikoemo)도 동조했다. 하지만 PRR는 결국 수카르노의 지시에 따른 군대 투입으로 완전히 제압당했다. 이로 인해 수미뜨로는 한동안 가족들과 함께 해외에서 지내야만 했다. 조코위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인 투쟁민주당은 그 뿌리가 PNI(Partai Nasional Indonesia)로서, 이는 수카르노에 의해 세워진 정당이다. 수마트라인들의 수카르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투표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투쟁민주당을 이끄는 당 대표는 수카르노의 딸인 메가와띠(Megawati)다(Bandaró 2019).

과 비교하여 득표율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쟁민주당은 의석수가 크게 증가(+19)하였고, 골까르당은 거린드라당에 비해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7석이나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했다. 이는 2017년 국회에서 통과시킨 선거법에 포함된 생라그(Sainte-Laguë) 방식에 따라 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vote-to-seat)을 적용한 결과이다. 둘째, 기존 정당 중 원내 진입에 실패한 하누라당은 장기화된 내부 갈등으로 분열하면서 4%라는 봉쇄조항을 넘지 못했다. 하누라당은 신생 정당들보다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당대표와 갈등이 있었던 국회의원 7명이 총선을 앞두고 다른 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사건이 있었다(Sapiie 2019).<sup>3)</sup> 셋째, 국회의원 의석수가 23명이나 증가한 나스탐당은 2014년 대선 때 대통령이 속한 투쟁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중 가장 먼저 조꼬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 반대급부로 1기 조꼬위 정부 때 나스탐당 출신 국회의원 3명이 내각에 발탁되었고, 이번 4월 총선에서도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당 대표(Surya Paloh)가 메트로(Metro) TV를 소유한 미디어 거물이라는 점도 선거 캠페인에 유리하게 작용했다(Prihatini 2019). 마지막으로 2014년 총선 후 생겨난 신생정당들은 모두 4%의 높은 봉쇄조항을 넘지 못해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신생정당으로는 페린도당, 노동당, 연대당이 있으며 신생정당은 아니지만 2014년 총선 때 원내 진입에 실패했던 군소정당인 통합정의당과 월성당도 또다시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여당연합과 야당을 구성하는 정당 구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 2014년 조꼬위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여당연합은 총

3) 전직 군 장성이자 선거당시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을 역임했던 위란또(Winranto)에 의해 세워진 정당으로 여당연합중 가장 작은 정당이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원내진입에 성공했다. 위란또가 조꼬위 내각에 들어가면서 당대표를 이어받은 우스만(Oesman)과 국회의원 수딩(Sarifuddin Sudding)과 갈등이 생기면서 수딩을 포함한 국회의원 6명이 나스탐당을 포함한 다른 당으로 이적했다.

575석의 국회의원 중 207석으로 여소야대의 구도였다. 하지만 2019년 4월 선거를 앞두고 거대 정당인 골까르당과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 중 하나인 통일개발당이 여당연합에 합류하면서 여당은 337석을 확보했다. 4월 총선 후 4% 이상 득표한 여당연합의 5개 정당은 총 349석의 의석수를 차지했다. 그런데 2기 조코위 정부의 내각에 거린드라당의 뿌라보워와 에디(Ehdy Prabowo)가 각각 국방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제1야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거린드라당이 여당연합에 합류했다. 그 결과 현재 여당연합은 427석으로 늘어난 반면, 세 개의 정당(PKS, Demokrat, PAN)만으로 구성된 야당은 148석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카르텔 정당연합’이 인도네시아에서 생소한 현상은 아니다.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도 거대 여당연합이 만들어졌다(Sefsani 2019). 통치자의 입장에서 카르텔 연합정당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 야당 세력의 약화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발전의 불안 요소로 여겨진다.

## 2. 부패방지법 및 형법 개정과 반대 시위

선거기간 동안 보여준 오른쪽으로의 질주와 이슬람에 함몰된 정체성 정치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즉 특별한 기간이기에 어느 정도는 용인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화가 선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9월 국회에서도 나타났다. KPK의 독립성과 권한을 약화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안과 혼외성관계를 금지하고, 대통령 모욕 및 신성 모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는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KPK를 무력화 시키려는 법안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했다. 1998년 수하르토

(Suharto)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었던 시위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KPK는 인도네시아에 만연된 부패, 공모, 연고주의(KKN, korupsi, kolusi, nepotisme)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인도네시아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서 1998년 개혁 정신이 낳은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Jakarta Post 2019/11/05). 이러한 공감대에 부응하기 위해 KPK에게는 엄청난 권한이 주어졌다. KPK는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했고, 언론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인도네시아의 기구 중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처음 조코위 대통령은 부패방지법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했고,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9월 17일 반부패법 개정과 함께 형법 개정안도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지만, 본인의 취임식을 한 달 앞두고 벌어진 전국적 시위에 당황한 조코위 대통령은 국회에 형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이미 통과된 부패방지법에 대해서도 철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 정부는 형법 개정안을 미세하게 수정할 계획만 있을 뿐 부패방지법을 철회할 계획이 없음을 발표했다(McRae and Robet 2019). 이는 지난 5년 동안 부패 청산, 개혁, 인권 개선을 바라면서 조코위를 지지했던 세력에게는 당황스러움 자체였다. 사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국회에서 KPK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2012년에는 유도요노 대통령이 수정안을 거부했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조코위 대통령이 수정안 제출의 연기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코위 대통령이 비공개 포럼에서 여러 차례 KPK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에<sup>4)</sup> 대통령의 지지에 힘입어 임기 종료를 한

4) 조코위 대통령은 비공개 포럼에서 KPK의 도청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KPK의

달 앞둔 국회의원들이 서둘러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들의 강력한 시위를 야기한 이러한 사태에 대해 자카르타의 파라마디나 (Paramadina)대학 자야디(Djayadi Hanan) 정치학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대통령은 여전히 좋은 사람이지만 그를 향한 압박이 많다는 게 한 가지고, 아니라면 그 역시 결국 보통 정치인과 다르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보여주게 된 것이다”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둘 다 일수도 있다”는 것이다(Illmer 2019).<sup>5)</sup> 대통령이 본래 기대했던 사람과 다른 정치 엘리트에 압박 때문에 자신의 소신대로 통치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이든 분명한 것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실망감이 물리적 시위를 동반할 만큼 크다는 것이다.

한편 형법 개정의 주된 명분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의 법을 그대로 차용한 현행법을 인도네시아의 상황에 맞게 바꾸자는 것이다. 현재의 인도네시아 형법은 1918년에 네덜란드 여왕인 빌헬미나 (Wilhelmina)의 요청의 의해 만들어진 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1945년 독립할 당시 큰 수정 없이 당시의 형법을 그대로 도입했다. 독립 직후 지도자들은 형법을 변경할 여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지속시키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형법을 급하게 바꿀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식민지배의 유산이 아닌 보다 인도네시아의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형법 개정안은 네덜란드의 식민 유산을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다. 명분은 충분히 타당한 것이고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롭게 바뀌는 형법이 과거의 것보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구속할 소지가 더 많다는 데 있다

기소 때문에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KPK의 주 활동이 예방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조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5) 필자는 자야디 하난 교수를 서울과 자카르타에서 두 번 만나 인터뷰를 실시했다 (2019년 12월, 2020년 1월). 자야디 교수는 조코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인격에 대해서는 호감을 보였지만, 그가 과연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원칙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Bayuni 2018). 시민들의 상당수는 형법 수정안이 더 나은 방향의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 되고 있다는 데 개탄하고 있다.

새롭게 개정하려고 하는 형법 조항에는 결혼 전 성관계 및 혼외 동거 금지, 대통령 및 부통령에 대한 모독죄 확대 적용, 국가 및 국가 기관에 대한 모독죄 확대 적용, 의학적 사유 없는 낙태 금지 등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 사회가 보수적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새롭게 개정될 형법 개정안 검토를 마치고 나서 다수의 국회의원과 법무·인권부 장관(Yasonna H. Laoly)은 만족감을 나타냈지만, 사회 활동가와 전문가집단은 개정이 지나치게 범죄자를 양산시키고, 소수와 취약한 그룹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Tehusijarana 2019). 일부는 인도네시아 전체가 샤리아를 적용하는 특별주(州)인 아제와 같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권활동가들은 형법이 개정될 경우 미혼모의 형사처분 가능성, 가난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하고 전통 예식만 치른 수백만 명의 부부가 범죄자로 전락할 가능성 등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형법 개정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동성애를 포함한 LGBT, 혼외 성관계, 동거 등이 인도네시아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보수단체인 AILA<sup>6)</sup>의 한 멤버는 “진실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종교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인도네시아의 다수와 모든 문화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Costa and Kapoor 2018). 형법 개정에는 종교에 기반 한 도덕적 규율을 법제화시킨다는 측면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반부패법 및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AILA는 ‘Aliansi Cinta Keluarga’의 앞 글자로 만들어진 이름으로 ‘가족사랑연합’이라는 뜻이다. 이 보수단체는 동성애와 혼외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왔다.

<표-3> 반부패 및 형법 개정안

<p>부패방지법 개정안 (UU No. 19/2019) (통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조) 독립된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했던 KPK의 지위를 국가 행정부 산하 기관으로 위치시킴(이전에는 사실상 독립적인 사법기구와 같은 지위였음).</li> <li>- (24조) KPK의 소속 수사관의 신분이 국가 공무원으로 변경됨(이전에는 신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li> <li>- (11조) KPK는 대중적 관심을 받는 사건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음(어떤 것이 대중적 관심을 받는 사건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음).</li> <li>- (40조) 2년 이상 해결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수사 종결권을 가짐.</li> <li>- (37B조, 12B조) 사전조사 및 본 조사에서 도청이 필요한 경우 감독 기관(Dewan Pengawas)으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음.</li> </ul>
<p>형법 개정안 (RKUH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 전 성관계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li> <li>- 혼외 동거는 6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li> <li>- 대통령, 부통령, 종교, 국가기관, 국가 상징물(국기, 국가) 등을 모욕하는 행위는 불법임.</li> <li>- 의학적 위급상황이나 강간 사유가 없는 경우, 낙태는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함.</li> <li>- 기르는 사육조류가 이웃 집 마당으로 들어가거나, 씨를 뿌린 밭에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거나, 마법을 광고하거나, 이미 술 취한 사람에게 알코올을 주거나 판매하는 것, 공공장소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것은 최소 1백만 루피아에서 최대 2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함.</li> </ul>

출처: UU No. 19/2019; Rancangan Kitab Undang-undang Hukum; 개정안 보도 자료를 참고로 필자 작성

### 3. 2기 조코위 정부 출범과 새 내각 구성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10월 20일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거행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집권 2기를 시작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정치사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에 이어 재임에 성공한 두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 자신의 야심찬 목표를 밝혔다. 그는 독립 100년이 되는 2045년까지 인도네시아를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GDP를 7조 달러까지 증가시



켜 경제 규모면에서 세계 5위에 진입하고, 빈곤율을 0%로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인재 개발, 인프라 개발, 규제 및 관료주의의 단순화,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경제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DW 2019). 조코위 대통령은 이러한 목표가 이성적인 것이며 현실 가능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혁신이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정부 관료들에게는 과정 중심적으로 일을 수행하지 말고 결과에 초점을 두고 일을 하라고 당부했다(Tehusijarana 2019).<sup>7)</sup>

취임 다음날로 예정되었던 내각에 대한 발표는 이들이 지난 10월 23일에서야 이루어졌다. 조코위 정부의 내각은 4명의 조정장관과 30명의 부처장관, 그리고 4명의 장관급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1기 내각에서 8명이었던 여성 장관의 수는 5명으로 줄었지만 30, 40대의 젊은 기업인을 등용하는 다소 파격적인 측면도 보였다. 내각에 포함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던 인도네시아 고젝(GOJEK)의 공동 창업자 나딤 마카림(Nadiem Makarim)은 35세라는 젊은 나이에 문화·교육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한때 이탈리아 세리에 A의 명문구단인 인터밀란의 구단주였고 2018년 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을 역임했던 미디어계 거물 에릭 토히르(Erick Thohir)는 국영기업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이번 내각 인선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두 번(2014년, 2019년)의 대선 라이벌이었던 브라보위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것이다. 한편 불법조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포된 선박을 현장에서 파괴하는 단호함을 보여주었던 수시 뿌지아스뚜띠(Susi Pudjiastuti)

7)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관료들이 자신에게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수행되었다고 보고했지만, 막상 현장에서 확인해본 결과 시민들은 수행된 프로그램으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꼬집어 언급했다. 그는 이를 SNS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빗대어 표현했는데,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Tehusijarana 2019).

해양수산부 장관은 높은 국민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유임되지 못했다. 그녀의 자리에는 거린드라당의 국회의원인 에디 빠라보위가 임명되었다. 조코위 정부는 이번 내각의 이름을 ‘Kabinet Indonesia Maju’라고 명명했는데, ‘maju’라는 단어는 ‘전진’, ‘발전’, ‘번영’ 등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전진(번영)하는 내각’ 정도로 번역될 수 있다.

정치적 견해에 따라 반응이 엇갈렸지만, 대체로 내각 인선이 국민들에게 큰 인상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내각을 신진 세력과 구세력, 여당·야당 정치인, 기업인, 테크노크라트가 혼합된 ‘타협의 내각’ 혹은 ‘가도-가도(Gado-Gado)’ 내각으로 이름 붙였다. 가도-가도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땅콩 소스에 버무린 인도네시아 전통 샐러드의 일종으로서 ‘혼합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Arshad 2019). 인도네시아 설문조사 기관인 ‘파라미터 폴리틱 인도네시아(Parameter Politik Indonesia)’의 대표인 아디(Adi Prayitno)는 이번 인선은 정치적 수용과 타협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몇몇의 장관의 경우 그 직에 부합하는 경력이 없는 사람이 발탁되었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내각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했다(Jakarta Post 2019/10/24). 선거기간 조코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지지층에서는 강한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상당수 활동가들은 1기 내각에서 그 분야 전문가에게 주어졌던 정보통신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직이 정치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빠라보위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것에 대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사안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 균형과 견제의 역할을 담당할 중요한 야당 세력을 잃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퇴보라는 비판, 반대 진영을 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것이 단순히 권력을 나누는 것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우려, 확실한 권력기반이 없는 대통령이 기존 정치 엘리트로부터의 압박을 견디기 위해선 여당연합뿐만 아니라 외부세력과

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투쟁민주당의 당 대표인 메가와티(Megawati)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 등이 있다(Arshad 2019).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에서는, 이번 인선이 상대 진영을 포용하고 국가 전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통령의 큰 결단이었다고 평했다. 조코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뿌라보위를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선거 기간 두 진영으로 갈라진 국가를 통합하고 탕평책을 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조코위의 열렬 지지층과 인권 단체 등은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냈다. 두 번의 대선 라이벌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매번 선거 때마다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심각한 국민적 갈등을 초래한 인물인 뿌라보위를 부처 중 가장 많은 예산(2020년 기준 90억 달러)이 할당된 국방부장관직에 임용한 것은 조코위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허탈한 결과이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조코위 선거캠프에서 그를 도왔던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선거의 필요성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반목했는가?”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인권과 관련된 NGO단체는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발생한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인사를 납치한 사건과 1983년 동티모르에서 일어난 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유린에 뿌라보위가 깊숙이 관여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주의 인사 납치 사건으로 인도네시아 군에서 축출된 인물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었다는 것은 과거시를 덮고 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안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면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법률을 개정하고 투자 관련 법률을 하나로 정리한 ‘옵니버스 법’을 통과시키고 수도를 깔리만판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국회의원 78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의 지지를

얻으려는 전략적 포석일 수 있다(Negara 2019). 한편 야심가인 빠라 보위의 입장에서는 장관 수락을 통해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 4. 국가 숙원 사업: 수도 이전

##### (1) 수도 이전 계획

중임이 가능한 대통령제에서 재선에 성공하고 집권 2기를 맞이하는 대통령의 권한은 그 어떤 순간보다도 막강하다고 한다. 인기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재선 소감을 밝힌 조꼬위 대통령은 지난 8월 26일 수도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수도 이전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수도를 동부 깔리만판주의 ‘뻬아잠 빠세르 우따라(Penajam Paser Utara)’ 지역의 일부와 ‘꾸따이 꺼르타 느가라(Kutai Kertanegara)’의 일부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1945년 독립 이후 초대 대통령부터 수도 이전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위치는 매우 전략적이고, (이곳은) 인도네시아의 중심이고, 다른 도시와도 가깝다. 현재 자카르타는 정치, 상업, 금융, 무역, 서비스의 중심지로서 너무 과중한 무게를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Guardian 2019).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후보 지역으로 선정된 두 지역의 일부를 합친 18만 헥타르에 해당하는 부지에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한다. 새롭게 건설될 도시는 숲 속의 스마트 시티가 될 것이라고 발표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18만 헥타르 중에서 4만 헥타르만 행정수도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14만 헥타르는 녹지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행정수도로 개발될 4만 헥타르 중에서도 정부 청사 건설을 위해 사

용될 면적은 약 1만 헥타르에 해당되고 나머지 3만 헥타르는 민간에 판매될 부지들이다. 수도 건설에 필요한 예상 비용은 486조 루피아 (약 330억 달러)인데, 정부 자금으로 19.2%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주택과 쇼핑몰을 담당하는 민간회사가 26%, 민관협력(PPP)으로 54.6%를 조달할 계획이다(Indonesia Focus 2019).

(2) 왜 이전하려고 하는가?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통치 시절부터 자바와 외곽 도서지역 간에 큰 개발 격차가 존재했다. 식민통치는 매우 비 균질적이었는데, 이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처음부터 식민 지배를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온 것이 아니라 상업적 목적, 즉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주요 지역에 상관을 설치하고 요새를 만들기도 했지만, 아체(Aceh), 발리(Bali) 같은 지역은 거의 200년이 지난 후에야 식민 지배를 받았다.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이 너무 자카르타와 자바에만 집중되는 문제는 국가 균형발전의 저해 요소다. 이러한 문제는 군도 국가라는 인도네시아의 지역적 특징 때문에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수도를 군도의 중앙에 위치시킴으로써 자바에 집중되는 발전을 국가 전역으로 분산시키고 국가를 보다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큰 계획이 수도 이전에 포함되어 있다. 지난 8월 조코위 대통령은 국회에서 수도 이전에 대해 승인을 요청하는 연설에서 “인도네시아는 단지 자카르타, 자바만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사방(Sabang), 므라우께(Murauke), 미앙아스(Miangas), 로테(Rote)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의 발전은 인도네시아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군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발전을 누려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Nathalia 2019).

자카르타는 세계 인구 4위 국가의 수도로서 인구와 관련된 문제를 비롯하여 자연재해와 인프라 부족 등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에 직면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토면적의 약 7%에 해당하는 자바섬에 인구의 56.7%인 1억 4천 5백만 명이 살고 있으며 수도인 자카르타에는 약 1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자보테따벡(JABODETABEK)’<sup>8)</sup>이라고 불리는 광역자카르타의 인구는 약 3천만 명으로 이들 중 일부가 낮에는 자카르타로 유입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천만 명이 훨씬 넘는 인구가 자카르타에서 생활하고 있다. 악명 높은 교통 정체는 많은 시간과 자원을 도로에서 허비하게 만들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큰 방해가 되고 있다. 자카르타 주지사가 조꼬위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자카르타는 매년 100조 루피아를 교통 체증으로 낭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Palembang) 아시안 게임 개막식에서 상영된 동영상은 악명 높은 자카르타의 교통 정체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통령궁이 있는 보고르(Bogor)에서 자카르타로 이동하던 조꼬위 대통령이 교통 정체로 인해 차에서 내려 오토바이를 타고 주경기장에 들어오는, 가상과 현실이 혼합된 모습은 자카르타의 교통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직접 타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장면을 연출한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근본 문제인 교통 체증을 해결하는 것은 큰 과제로 남아있다.<sup>9)</sup>

지반 침하와 잦은 홍수는 교통 체증만큼이나 큰 문제다. 자카르타는 자바섬의 서북부에 위치한 해안 도시로서 지표면의 상당 부분이 해수면보다 낮다. 2018년에 방영된 BBC 방송에 따르면 자카르타는

8) 대통령궁이 있는 보고르(Bogor), 인도네시아 대학(UI)이 있는 데벡(Depok),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이 있는 땅그랑(Tangerang), 그리고 많은 한국기업이 입주해 있는 뽀까시(Bekasai)를 합친 광역자카르타를 소위 ‘자보테따벡(JABODETABEK)’이라고 부른다.

9) 영국의 윤활유 제조사인 카스트롤(Castrol)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세계 78개의 도시 중 자카르타의 교통정체가 가장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일 년 동안 1km 구간 동안 차가 ‘가다 서다’를 반복한 횟수에 바탕 한 것으로서 자카르타의 경우 33,240회의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표면이 침하해서, 만약 지금처럼 방치되면 2050년에는 도시의 상당부분이 침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둥공대(Bandung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20년 동안 자카르타의 지반 침하를 연구한 헤리 안드레아스(Heri Andreas)는 “자카르타가 물에 잠길 수 있는 가능성은 그냥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연구 모델에 따르면 2050년 북부 자바의 약 95%가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Lin and Hidayat 2018). 현재 서부 자카르타는 일 년에 15센티미터, 동부는 10센티미터, 중부는 2센티미터, 남부는 1센티미터씩 가라앉고 있으며, 그 결과 도시의 절반가량이 해수면보다 낮다. 빠른 속도로 지반 침하가 일어나는 이유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그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꼽을 수 있다.<sup>10)</sup> 지반 침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홍수 문제다. 북쪽이 자바해와 마주하고 있는 자카르타에는 13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 열대 지방의 집중폭우, 해수면보다 낮은 지표면, 침하되고 있는 지반, 방치되고 있는 강과 하수 시설은 자카르타 서민들이 늘 홍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다.

2019년 초에 발표된 그린피스(Greenpeace) 자료에 따르면 자카르타는 동남아시아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다. 2018년 동안 초미세먼지(PM 2.5)가 1세제곱미터 당 45.3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기준치의 네 배가 넘는 수치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인간의 호흡기를 통해 몸 전체로 확산되는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계통 질병부터 심장 발작, 암, 뇌졸중 등을 유발한다(Mustasya and Andriyanu 2019). 2019년 7월에는 자카르타 주민 31

10) ‘무분별’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이 조심스러운데, 그 이유는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는 많은 주민이 어쩔 수 없이 길게 관 우물물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돗물 공급은 자카르타 주민의 물 수요의 40%만을 충족하고 있다(Lin and Hidayat 2018).

명이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조꼬위 대통령, 보건부 장관, 환경·산림 장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대통령에게 대기 오염을 통제하는 규정을 수정할 것과 인도네시아의 대기질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Arifah and Renaldi 2019).

### (3) 해결해야 할 문제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수도 이전이 계획처럼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인도네시아의 경우 1,000킬로미터도 더 떨어진 새로운 섬에 신도시를 건설해야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제약이 있다. 가장 급하고 실질적인 문제는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는 문제다. 현재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연합 정당 중에서 대통령이 속한 투쟁민주당(PDI-P)만이 강한 지지를 표명했고, 나머지 정당은 분명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거린드라당을 여권연합으로 끌어들이면서 큰 부담을 덜은 상황이다.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환경론자들은 수도 건설과 이전에 필요한 330억 달러의 비용이 신중하게 잘 사용되지 않으면 한 곳의 생태적 재앙이 다른 곳으로 이전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수도를 이전한다고 해서 자카르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행정 수도를 이전해도 자카르타는 금융과 상업적 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현재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약 천만 명의 거주민도 그대로 남을 계획이다. 자카르타 주지사인 아니스(Anies Baswedan)는 수도 이전이 자카르타에 미미한 변화를 초래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oon 2019). 엄청난 예산을 신도시 건설에 사용하는 것이 자카르타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자카르타의 많은 문제는, 부족하고 낡은 인프라 문제



에서 기인된 것인데 이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신도시 건설에 사용되면 기존의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자카르타가 수도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하지만 수도 이전을 통해 자카르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현지 여론조사 기관인 림바가 서베이 미디어(Lembaga Survei Median)가 2019년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34개 주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수도 이전에 대한 대면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의 86.7%가 수도 이전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중 45.5%는 수도 이전에 반대, 40.7%는 찬성, 14%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반대하는 목소리는 20대 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찬성은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그 이유를 ‘균형 잡힌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자카르타의 인구 밀도를 낮출 수 있고’, ‘교통 체증을 완화할 수 있고’,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반대하는 입장은 ‘대통령이 당면한 현안을 먼저 해결해야 하고’, 그 다음 수도 이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 문제와 실업 문제’, 그리고 ‘이미 국토 불균형 발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빠뿌아(Papua)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Detik News 2019).

수도 이전으로 인해 초래될 수도 있을 손해를 걱정하는 기득권층에게 기존의 질서를 변경하는 것은 반갑지 않은 소식일 수 있다. 또한 자카르타가 직면한 문제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서민들도 자신의 생활터전에 초래될 변화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우려를 나타낸다. 자신이 수도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일부 시민은 우리가 ‘촌놈(orang kampung)’으로 전락하는 거냐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지금까지 아무도 실천에 옮기지 못한 수도 이전을 결심한 조꼬위 정부의 결단이 자카르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필

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2014년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인프라 사업을 강조한 조코위 대통령에게 수도 이전은 엄청난 치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5년 동안 거대 인프라 사업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관련 사업으로 인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일으킬 수 있다.

## 5. 소결

자카르타의 한 저널리스트는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치기 보다는 비판을 껴안고(co-opt)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조코위 대통령의 행보를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단어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Bevince 2019). 최근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목격되는 보수화 현상을 인도네시아가 민주주의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치의 이너써클(inner circle)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온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 기존 정치 엘리트 세력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인도네시아 정치를 이해하는 데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다.

예측에서 다소 벗어나 보였던 조코위 대통령의 행보는 그에 대한 기대와 실제 조코위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간극에서 오는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 신인이 대통령에 오르는 과정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되었다는 인상을 주었지만, 그 사건과 조코위라는 개인이 얼마나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과 소신이 있는지는 별개의 사안일 수 있다. 더불어 인도네시아 정당을 구분할 때 흔히 사용하는 스펙트럼에서, 진보와 보수는 서구식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진보와 보수의 개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많은 경우 인도네시아 정당을 구분하는 스펙트럼에서 가장 왼쪽에 위치하는 정당을 ‘민족주의 정당’,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정당을 ‘이슬람 정당’으로 구분한

다. 이러한 구분의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지기는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는 투쟁민주당, 거린드라당, 나스텔당은 민족주의 정당으로 분류되고,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통일개발당, 변영정의당, 국민각성당, 국민수권당은 이슬람 정당으로 구분된다(Evans 2019). 그런데 가장 왼쪽에 위치한 정당이 서구 개념의 진보정당이 아닌 민족주의 정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코위 대통령과 현 정부의 행보가 오른쪽으로 질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19년에 일어난 주요한 정치적 사건을 통해 기존 정치 엘리트와 정당 카르텔의 메커니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올리가키(oligarchy) 외부에 있었지만 자카르타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기존 권력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자카르타 주지사가 되는 과정에 뿌라보위가 깊이 관여했다(Winters 2013).<sup>11)</sup> 또한 대통령 후보였을 때는 기존 정치와 결탁되지 않은 젊고 개혁적이라는 이미지가 큰 정치적 자산이지만,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러한 자산은 통치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총선 득표율 25% 이상 또는 의석 점유율 20% 이상을 얻은 정당이나 정당 연합만이 대통령 후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많은 순기능이 있지만, 새로운 인물이 대선 후보가 되는 데 큰 장애물일 수 있다. 조코위와 같은 예외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예외적인 인물도 기존 정치세력의 도움 없이는 후보가 될 수 없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수도 이전은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으로 이를 임기 내에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의 지지, 국회의 동의,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로부터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미 수도이전을 실시한 국가들의

11) 자세한 내용은 Winters, Jeffrey A. 2013. "Oligarchy and Democracy in Indonesia." *Indonesia* 96 참조.

전례에서 보듯이 수도 이전이라는 것은 복잡하게 얽힌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간접적인 이권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수도 이전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혁보다는 안정을 분열보다는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 이미 선거, 대선 불복, 반부패법 및 형법 개정안으로 인도네시아는 심하게 분열되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조코위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안정과 통합을 위한 현실적 타협으로 이해될 수 있다.

종합하면 2019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정치적 이슈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치가 실용주의와 시장주의, 그리고 종교적 보수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선거 기간 동안 대두된 정체성 정치는 인도네시아 사회가 보수화하는 데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편과 수사였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2019년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모습을 하나 선정한다면 조코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나서 아혹을 국영기업인 빠르따미나(Pertamina)의 총감독관(president commissioner)으로 임명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조코위 대통령이 얼마나 개혁을 실천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실용주의자이고 민주화 요구보다는 경제 성장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인프라 개발과 수도 이전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는 것만 해도 너무 벅찬 과제인 듯하다.

### Ⅲ. 2019년 인도네시아 경제: 투자 환경 개선과 한국과의 관계

#### 1. 지표로 살펴본 2019년 인도네시아 거시경제

2019년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투자와 수출의 부진으로

5.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목표했던 5.3%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일 뿐만 아니라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를 감안하면 5.02%의 경제성장률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적어도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제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우선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계소비(56.52%)가 일 년 내내 강세를 보이면서 5%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수출은 전년대비 7%가 감소한 1,675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약 9.5%가 감소한 1,707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31억 9,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출이 증가해서 무역수지가 개선된 것이 아니라 원자재 수입의 감소에 의해 적자 폭이 감소된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원자재 수입의 감소는 생산 활동이 그만큼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Herman 2020). 수출은 미-중 무역 갈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부진,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부진했다. GDP에서 두 번째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투자(32.32%)는 전년 대비 4.45% 증가하는 데 그쳤고, 정부의 지출은 전년 대비 3.25% 증가했다(Akhlis 2020b).

인플레이션은 전년대비 2.72%를 기록했는데, 이는 물가 및 식자재의 수요·공급을 통제하려는 국가의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이후 4년 연속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2.72%는 지난 2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다(Musyaffa 2020). 인플레이션과 함께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실업률인데, 2019년 8월 기준 5.28%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9년 달러 대비 루피아의 가치가 안정적이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총재 페리 와르지요(Perry Warjiyo)의 설명에 따르면 2019년 많은 외국 자본이 인도네시아 국채 및 회사채로 유입되면서 전년대비 외환보유고가 7% 늘어난 1,280억 달러를 기록했다(Musyaffa 2020). 인도네시아는 2018년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이 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2018년에는 달러대 비 루피아의 가치가 1990년 후반의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자금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2018년 한 해 동안 기준 금리를 1.75% 인상했었다. 하지만 2019년에는 세계경제의 악화로 경기가 둔화되자 7월부터 금리를 9달 연속 인하여 총 1.00% 포인트를 내렸다. 이는 세계 경기 침체 속에서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선제조치라고 볼 수 있다.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2019년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국가 경제가 민간 소비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5%대 성장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민간 소비도 2001년 이래로 점차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과 투자를 증진하지 않고서는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무엇보다 경제성장의 동력이 제조업의 성장에 기초해야 하는데 제조업 분야의 투자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2. 기대에 미치지 못한 투자 유치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투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노력대비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 기실 인도네시아는 투자유치 측면에서 미-중 무역 갈등의 수혜국이 될 것을 은근히 기대했었다. 하지만 2019년 한 해 동안 미중무역 갈등으로 중국에서 철수를 결정한 기업 33개 중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기업은 단 하나도

없었다. 33개의 기업 중 23개가 베트남으로 그리고 나머지 10개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으로 이전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9월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전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인허가를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베트남에서는 두 달이면 해결 되니 베트남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질책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를 탈출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투자유치”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19/09/06).

2019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총 282억 달러로 목표치의 87.5%를 달성했다. 이는 2018년의 FDI 총 금액인 293억 달러와 비교해서도 저조한 금액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조코위 정부가 FDI 확대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더불어 외투기업들이 4월에 있었던 선거의 결과를 지켜보고 투자를 결정하려고 했던 심리를 꼽을 수 있다(Star 2020/01/30). 분기별 FDI 실적을 보면 선거를 전후로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2분기 동안 전년대비 각각 -11.6%, -0.9%의 저조한 유치 성과를 기록했지만 3, 4분기 동안 각각 9.6%와 17.8%가 상승했다.

투자 유치는 조코위 대통령이 재임 초기부터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에 두고 직접 챙겼던 부분이다. 사업가 출신의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 시키고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줄여 2019년까지 기업환경평가 순위를 40위로 끌어 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세계은행이 2019년 10월에 발표한 ‘2020 Ease of Doing Business(EODB) Index’에서 인도네시아는 2018년과 같은 73위를 기록했다. 주변국인 베트남이 70위, 태국이 21위, 말레이시아가 12위, 싱가포르가 2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행한 다양한 경제 개혁이 노력

에 비해 효율성면에서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는 증거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노력이 지방정부까지 전달되지 않고 새로운 규정에 대해 엇박자 행보를 보이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기업환경평가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최저임금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고용과 관련하여 가장 경직된 규정을 적용하는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외국계 기업이 해당 국가에 투자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고용 및 해고와 관련된 규정의 유연성에서 인도네시아는 100점 만점(가장 유연한 상태)에 각각 38점과 40점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또한 강제적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노동시간의 감소와 실업률 상승을 초래하여 중·하위 계층의 실질적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해온 인프라 개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과 안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인프라 개발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유치에 필요한 보다 직접적인 개혁과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 3. 옴니버스 법(Omnibus Law)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 시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여러 개의 법률 조항을 한 번에 개정할 수 있는 옴니버스 법을 통해 투자환경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2기 취임식 연설에서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법조항을 단순화 시키는 옴니버스 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Akhlas 2020a). 재무부 장관인 스리 물리야니(Sri Mulyani Indrawati)도 조세 제도 개혁을 위해 수정이 필요한 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옴니버스 법은 그 외에도 여러 개가 있지



만 투자진출과 관련된 법률은 고용창출법(UU Cipta Lapangan Kerja)과 조세법(UU Perpajakan)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sup>12)</sup>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투자와 관련된 인허가 등의 절차는 그동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쉽게 개선될 수 있는데 반해 법 제도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그리고 고용 비용의 경쟁력 등은 외투기업이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옴니버스 법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영역의 법률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 국회에서 단 한 번의 투표로 이를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을 하나 하나 뜯어고치려면 50년이 소요될 것이다”고 말하면서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필요성을 강조했다(Ahhlas 2020). 인도네시아 법률개발 기관장인 베니 리안또(Benny Rianto)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법률들은 법 간의 일관성 부족, 법의 중복, 과잉 규제 등의 문제가 있어서 법의 불확실성, 국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투자 감소, 기업 경쟁력 약화, 실업률 증가 등을 초래하고 있다(허유진 2020). 정부와 경영계에서는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정된 법률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령, 장관령 등 43,511개의 지나치게 많은 규정으로 기업이 과잉 규제되고 있다는 데 동감하고 있다(Samboh 2020). 총 73개의 법안 수정을 포함하고 있는 고용창출법은 사업 인허가를 간소화시키기 위한 투자조정청(BKPM)의 역할 강화, 투자제한리스트(DNI)의 개정, 해고 규정 완화, 외국인 근로자 근로 허가 완화, 외주(outsourcing) 규정 완화, 유연한 최저임금 적용 허락(노동집약적 산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옴니버스 법 제정에 반대하는 학생들과

12) 위에서 언급한 법안 외에도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법, 수도 이전과 관련된 수도 이전법, 인도네시아 해양 안보와 관련된 해양안보법에 대한 옴니버스법을 제정 중이다.

노조연합은 새롭게 개정될 법안이 근본적으로 친기업적이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환경 문제를 초래할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민사회는 옴니버스 법이라는 형식으로 법안을 일괄적으로 통과시키면 개정될 법안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검증의 기회가 박탈될 것에 대해 우려감을 타나내고 있다.

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서는 여당연합이 국회의원 의석수의 73%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다만 노동법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 대통령이 속한 투쟁민주당이 과거 노조연합의 지지를 받은 점, 과거 정권에서도 노동법을 개선하려던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로 끝난 점, 그리고 여당연합의 결속력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은 상황을 마냥 낙관적으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요소들이다(Reuters 2019/12/12). 종합해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옴니버스 법을 통해 지방정부에게 이양했던 권한의 일부를 중앙정부로 귀속시켜 인허가와 관련된 절차를 단순화시키고, 고용과 관련해서는 노동 경직성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외투 기업의 투자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서 시장과 노동력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4. CEPA 최종 타결

2019년 11월 25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동안 진행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CEPA)을 최종 타결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이지만 양국 간 상품 및 인력 이동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 및 협력까지 포함하는 무역협정이다. 이번 협상 타결은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양 국가 간 CEPA 협상을 위한 공동연구는 10년 전인 2011년에 시작

되었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5년 간 협상이 중단되었다가 지난 2018년 9월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다시 재개되었다. 최종 타결이 있기 한 달 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의 엔가르띠아스토 루기띠(Enggartiaso Lukita) 무역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 만나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했다.

한국정부는 CEPA 타결을 통해 신남방 자유무역협정 정책이 본격화되고, 한국 상품의 인도네시아 시장접근이 개선되며,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겪는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의의를 강조했다. 산업통산부의 보도자료<sup>13)</sup>에 따르면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인도네시아 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 높여 다른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였다. 기존의 한-아세안 FTA를 통한 인도네시아의 시장 개방 수준은 80.1%였는데, 이번 한-인니 CEPA 합의를 통해 개방 수준이 93%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CEPA 협정에 협력 챕터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자동차를 포함한 산업개발, 에너지, 문화콘텐츠, 인프라, 보건 분야에서 정부 및 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의 틀을 마련하였다.

재임기간 동안 아세안 10개국을 방문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국빈방문지였던 인도네시아에서 신남방 정책의 첫 결과물이 나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CEPA가 단순한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지난 10년 동안 무역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한-아세안 간의 무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한-베트남의 무역량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의 무역관계는 지난 몇 년 동안 감소 혹은 답보상태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10개국 중 베트남 다음의 제

1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11/25).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종 타결.’” 참조.

2 교역상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양 국가 간 교역이 정점이었던 2011년(300억 달러)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어 2016년에는 149억 9,000만 달러까지 축소되었다. 2019년 한국-인도네시아 교역액은 164억 7,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7.6% 감소했는데, 이는 2016년 이래 최저 교역 규모다. 물론 2019년은 미-중 무역 갈등, 글로벌 경기 침체, 글로벌 트렌드 변경으로 인한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의 생산 계획 변동 등 양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적인 변수가 강하게 작용한 해였다. 코로나-19(COVID-19)문제로 2020년 경제 전망도 매우 어둡기는 하지만 조코위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의지와 CEPA의 발효가 양 국가의 무역 증진에 새로운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5. 소결

2019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 기대치를 밑도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세계적 경기 둔화에 미-중 무역 분쟁까지 더해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5.02%라는 경제성장률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의 주된 동력인 수출 및 투자 감소와 국가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다. 조코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인프라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프라 사업의 결과가 국가경쟁력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인프라 사업과 더불어 보다 직접적인 성장 동력을 찾아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여러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미성숙 탈공업화’다. 미성숙 탈공업화는 공업화가

성숙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제조업의 비중과 역할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고도화되면 자연스럽게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지만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발전 단계의 자연스러운 이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탈공업화와 달리 중진국 초입에 들어선 인도네시아에서 제조업이 감소하는 문제는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경쟁력 저하는 또한 제조업 분야의 투자 부진으로 이어진다. 인도네시아가 1980년 이후 공산품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한 적은 한 해(2000년)뿐이었고, 2010년 이후에는 줄곧 적자가 수백억 달러에 이른다(박번순 2019). 글로벌 밸류체인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기업이 밸류체인을 장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주변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도 경쟁력이 낮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후발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 노동시장의 경직성,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 인허가 절차, 법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상실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9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옴니버스 법을 통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법률들을 수정할 준비를 진행해왔다. 사실 조코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인도네시아의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옴니버스 법 중에서도 특히 고용창출 법은 투자환경을 친기업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옴니버스 법은 관련된 법을 일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론화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안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수정될 법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노동계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옴니버스 법안 작성을 위한 태

스크포스(task force)는 대부분 사업주들로 구성되었다. 그 외에도 시민사회는 지방정부에게 이양했던 권한의 일부를 중앙정부로 다시 귀속시킨다는 점, 수정될 법안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친기업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환경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조꼬위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향후 5년 동안 현 정부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를 읽을 수 있다. 그는 독립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인도네시아를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시키고, GDP를 7조 달러까지 증가시켜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목표가 이성적이고 현실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한 조꼬위는 나머지 임기 동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물리적 기반(인프라 시설)과 제도적 기반(옵니버스 법)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하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주적 절차를 희생시키려는 것은 지양해야 할 점이다. 무엇보다 민주적 절차를 희생시키고 만들어진 법률이 반드시 경제 성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IV. 나오는 말

2019년 인도네시아 정치는 다이내믹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선거 때마다 무슬림 후보답지 못하다는 구설수에 올랐던 조꼬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 아혹을 구속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이슬람 학자를 부통령 후보에 선정했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석방된 아혹을 인도네시아 국영회사인 빠르따미나의 총감독관에 임명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헌법재판소에 무효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사회를 두 진영으로 갈라놓았던 빠라보워를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강력

한 야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거린드라당을 여당연합에 합류시켰다. 정체성 정치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이슬람 정당으로 분류되는 정당의 약진은 없었다. 여전히 민족주의 정당으로 분류되는 정당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허용하는 종교적 관용의 범위가 축소되어 종교의 자유가 실제로는 제한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이슬람적인 요소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목격되고 있다. KPK의 무력화, 형법 개정 등은 인도네시아 사회가 보수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5년 전 조코위 대통령에게 정치적 개혁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반부패법과 형법 개정안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조코위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예측에서 다소 벗어난 행보를 보였지만, 큰 그림에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사업가 출신의 대통령은 5년의 통치기간을 거치면서 점차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보다는 경제 성장에 국정 운영의 방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조코위 대통령이 가구 사업가에서 인구 50만의 수라카르타(Surakarta) 시장을 거쳐 자카르타 주지사, 그리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도네시아 정치가 한 단계 성숙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온 것과는 별개로 사업가 출신 조코위 본인이 민주주의에 대한 뚜렷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는 별개의 사안일 수 있다. 그의 두 번째 대통령 취임사는 인도네시아를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키기 위한 경제 발전의 열망으로 가득 찼다. 인프라 개발, 수도 이전, 투자 관련 법 개정 등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후퇴도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고 나서 기자들에게 이제 자신은 아무런 정치적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부담이라는 것이 유권자들로부터의 부담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정치 엘리트들로

부터의 부담에서 자유로운 것이라야 한다. 그런데 2기 정부 내각 구성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들로부터는 부담이 없지만 정치 엘리트들에게로부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Gammon 2019).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조꼬위가 좋은 사람, 그리고 ‘왕 쩔릭(Wong Cilik, 보통사람)’을 대변하는 정치인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A’yun and Mudhoffir 2019).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희망과 변화를 열망하는 신출내기 정치인이 아니라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기성정치인으로 변화하고 있다(Soloway 2019).

조꼬위를 지지한 많은 유권자들은 그가 2014년 대선 후보 때 약속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난 5년 동안 이룬 경제적 성과가 새로운 5년을 두고 지켜볼 정도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서 개혁, 민주주의 강화, 인권 개선 등과 같은 희망은 퇴색되고 있다. 대학생들 비롯한 시민들은 개혁이 사라지고 인도네시아가 종교에 기반한 보수적인 국가로 퇴보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를 시위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경제 성장 없이 제도적 민주주의만 공고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올바른 절차와 과정 없이 결과에만 치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재선 취임연설에서 조꼬위 대통령은 관료들이 단순히 프로그램의 절차를 수행했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프로그램의 결과가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요한 것은 과정이 아니라 그 결과’라고 말했다. 분명 경제적인 성과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과정도 결과만큼 중요하고, 때론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박변순. 2019. 『아세안의 시간: 동남아시아 경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서울: 지식의 날개.
- 산업통상자원부. 2019.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종 타결.’” 11월 25일.
- 서지원·김형준. 2018. “인도네시아 2018: 수하르토 퇴진 후 20년, 일상화된 선거민주주의와 경제발전.” 『동남아시아연구』 29(2): 55-87.
- 연합뉴스. 2019. “조코위 인니 대통령 ‘중국 이탈 기업 33개 중 23개가 베트남행.’” 9월 6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6062600104>(검색일 2019.12.31.)
- 이지혁. 2018. “세 가지 화두로 살펴본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신성모독, 탈-진실(post-truth), 정체성 정치.” 『아시아리뷰』 7(2): 87-116.
- 허유진. 2020. “인도네시아,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옴니버스 법 마련한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 Akhlas, Adrian Wail. 2020a. “Jokowi Faces Uphill Battle to Pass Omnibus Bills.” *Jakarta Post*. January 20.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1/20/jokowi-faces-uphill-battle-to-pass-omnibus-bills.html>(검색일 2020.02.24.)
- \_\_\_\_\_. 2020b. “Indonesia’s GDP Growth Stagnated at 5.02 Percent Last Year, Weakest Since 2015.” *Jakarta Post*. February 05.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2/05/indonesias-gdp-stagnated-at-5-02-percent-last-year-weakest-since-2015.html>(검색일 2020.02.24.)
- Andapita, Vela and Gorbiano, Marchio Irfan. 2019. “After Hectic

- Year, Calm 2020 Expected.” *Jakarta Post*. December 31.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12/31/after-hectic-year-calm-2020-expected.html>(검색일: 2019.12.31.)
- Arifah, Iffah Nur and Renaldi, Erwin. 2019. “Indonesians Are Suing President Joko Widodo and Government Officials over Jakarta Air Pollution.” *ABC News*. July 10.  
<https://www.abc.net.au/news/2019-07-10/indonesians-are-suing-government-over-jakarta-air-pollution/11291338>(검색일: 2019.09.02.)
- Arshad, Arlina. 2019. “‘Gado-gado’ Cabinet Shows Compromise.” *Star*. October 24. <https://www.thestar.com.my/news/regional/2019/10/24/gado-gado-cabinet-shows-compromise>(검색일: 2019.12.02.)
- A’yun, Rafiqa Qurrata and Mudhoffir, Abdil Mughis. 2019. “The End of the KPK - at the Hands of the ‘Good’ President.” *Indonesia at Melbourne*. September 24.  
<https://indonesiaatmelbourne.unimelb.edu.au/the-end-of-the-kpk-at-the-hands-of-the-good-president/>(검색일: 2020.01.02.)
- Bandaro, Erizely. 2019. “Mengapa Orang Padang Membenci Jokowi.” *Redaksi Indonesia*. <https://redaksiindonesia.com/read/mengapa-orang-padang-membenci-jokowi.html>(검색일: 2020.01.02.)
- Bayuni, Endy. 2018. “New Penal Code: How Are We Worse Than the Dutch?” *Jakarta Post*. February 13. <https://www.thejakartapost.com/academia/2018/02/13/commentary-new-penal-code-how-are-we-worse-than-the-dutch.html>(검색일: 2019.12.07.)
- BBC NEWS*. 2019. “Indonesia Election 2019: All You Need to

- Know.” April 12. <https://www.bbc.com/news/world-asia-47729119>(검색일: 2019.12.24.)
- Benvince, Vincent. 2019. “Indonesia’s Democracy Is Becoming More Conservative.” *Atlantic*. April 17.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9/04/indonesia-democracy-elections-conservative/587341/>(검색일: 2020.01.04.)
- Chan, Francis. 2019. “Indonesia’s Jokowi Re-elected With 55.5 Percent of Votes: Elections Commission.” *Straits Times*. May 21. <https://www.straitstimes.com/asia/se-asia/president-jokowi-re-elected-with-555-per-cent-of-votes-elections-commission> (검색일: 2020.01.07.)
- Costa, Agustinus Beo Da and Kapoor, Kanupriya. 2018. “Indonesian Lawmakers Want to Revise the Country’s Criminal Code in a Move that Could Target LGBTQ People.” *Business Insider*. January 31.(검색일: 2020.01.07.) <https://www.businessinsider.com/indonesian-lawmakers-want-to-revise-criminal-code-target-lgbtq-people-2018-1>
- Detik News*. 2019. “Survei Median: 45,3% Publik Tak Setuju Ibu Kota Dipindah.” September 03. <https://news.detik.com/berita/d-4691620/survei-median-453-publik-tak-setuju-ibu-kota-dipindah>(검색일: 2019.12.07.)
- DW*. 2019. “Can President Jokowi Transform Indonesia During His Second Term?” October 21. <https://www.dw.com/en/can-president-jokowi-transform-indonesia-during-his-second-term/a-50917011>(검색일: 2020.01.04.)
- Evans, Kevin. 2019. “Guide to the 2019 Indonesia Election.” The Australia-Indonesia Center.

- Gammon, Liam. 2019. "What Was That Election for Again?" *Inside Story*. October 25.
- Guardian*. 2019. "Indonesia Announces Site of Capital City to Replace Sinking Jakarta." August 26.
- Herman. 2020. "Indonesia's Trade Deficit Narrows by Third in 2019." *Jakarta Globe*. January 15. <https://jakartaglobe.id/business/indonesias-trade-deficit-narrows-by-third-in-2019>(검색일: 2020.01.20.).
- Illmer, Andreas. 2019. "Not Just About Sex: Indonesia's Protests Explained." *BBC News*. September 27.
- Indonesia Focus*. 2019. "East Kalimantan to Host New Capital City Of Indonesia By 2024." Quarterly Global Outlook, 4Q 2019.
- Jafferey, Sana. 2020. "Is Indonesia Becoming a Two-Tier Democracy?"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January 23. <https://carnegieendowment.org/2020/01/23/is-indonesia-becoming-two-tier-democracy-pub-80876>(검색일 2020.01.29.)
- Jakarta Post*. 2019. "Jokow's New Cabinet Fails to Impress." October 24.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10/24/jokowis-new-cabinet-fails-to-impress.html>(검색일 2019.12.24.)
- \_\_\_\_\_. 2019. "Who Killed the KPK?" November. 05. <https://www.thejakartapost.com/academia/2019/11/05/who-killed-the-kpk.html>(검색일 2019.12.24.)
- Lamb, Kate. 2019. "Fake News Spikes in Indonesia Ahead of Elections." *Guardian*. March 20.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mar/20/fake-news-spikes-in-indonesia-ahead-of-elections>(검색일 2019.11.26.)

- Lane, Max. 2019. "The 2019 Indonesian Elections: An Overview." *Perspective* 49.
- Lin, Mayuri Mei and Hidayat, Rafki. 2018. "Jakarta, the Fastest-Sinking City in the World." *BBC News*. August 13. <https://www.bbc.com/news/world-asia-44636934>(검색일 2019.10.26.)
- McRae, Dave and Robet, Robertus. 2019. "Indonesia's Fading Democracy Dream." *East Asia Forum*. November 17. <https://www.eastasiaforum.org/2019/11/17/indonesias-fading-democracy-dream/>(검색일 2019.11.26.)
- Mustasya, Tata and Andriyanu, Bondan. 2019. "Jakarta's Enemy is Air Pollution." *Jakarta Post*. June 29.
- Musyaffa, Iqbal. 2020. "Indonesia's Economy Grew Last Year Despite Shortfalls." *Anadolu Agency*. January 09. <https://www.aa.com.tr/en/asia-pacific/indonesia-s-economy-grew-last-year-despite-shortfalls/1697593>(검색일 2020.01.16.)
- Nathalia, Telly. 2019. "Jokowi Seeks Approval From Parliament to Move Capital to Kalimantan." *Jakarta Globe*. August 16.
- Nation Thailand. 2019. "The Challenges Ahead for Jokowi's Second Term." April 21. <https://www.nationthailand.com/opinion/30368076>
- Negara, Siwage Dharma. 2019. "While Jokowi's Critics Question His Cabinet Choices, the Markets Have Responded Positively." *This Week in Asia*. October 25.
- Pepinsky, Thomas. 2019. "Islam and Indonesia's 2019 Presidential Election." *Asia Policy* 14(4): 43-87.
- Poon, Linda. 2019. "Why Indonesia Wants to Move Its Capital Out

- of Jakarta.” *CITILAB*. May 6. <https://www.citylab.com/environment/2019/05/indonesia-moving-capital-sink-jakarta-jokowi-climate-change/588415/>(검색일 2019.12.26.)
- Prihatini, Ella S. 2019. “Biggest Winners and Losers in Indonesia’s Legislative Elections.” *Conversation*. April 17. <https://theconversation.com/biggest-winners-and-losers-in-indonesias-legislative-elections-115720>(검색일 2019.12.16.)
- Reuters*. 2019. “Explainer: Indonesia Bets on ‘Omnibus Laws’ to Fix Investment Climate.” December 12. <https://www.reuters.com/article/us-indonesia-economy-laws-explainer/explainer-indonesia-bets-on-omnibus-laws-to-fix-investment-climate-idUSKBN1YG15Y>(검색일 2020.02.14.)
- Samboh, Esther. 2020. “Guide to Omnibus Bill on Job Creation: 1,028 Pages in 10 Minutes.” *Jakarta Post*. February 24.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2/21/guide-to-omnibus-bill-on-job-creation-1028-pages-in-8-minutes.html>(검색일 2020.02.28.)
- Sapiie, Marguerite Afra. 2019. “Hanura, Party Allied with Jokowi, Fails to Obtain House Seats.” *Jakarta Post*. May 22.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05/22/hanura-party-allied-with-jokowi-fails-to-obtain-house-seats.html>(검색일 2020.01.04.)
- Sefsani, Ririn. 2019. “Indonesian Democracy Needs Diverse Opposition.” *Jakarta Post*. October 18. <https://www.thejakartapost.com/academia/2019/10/18/indonesian-democracy-needs-diverse-opposition.html>(검색일 2020.02.26.)
- Soloway, Benjamin. 2019. “What’s at Stake in Indonesia’s

Elections?.” *Foreign Policy*. April 16. <https://foreignpolicy.com/2019/04/16/whats-at-stake-in-indonesias-elections/>(검색일 2019.12.26.)

*Star*. 2020. “FDI into Indonesia Falls Below 2019 Target, But Seen Rising in 2020.” January 30. <https://www.thestar.com.my/business/business-news/2020/01/30/fdi-into-indonesia-falls-below-2019-target-but-seen-rising-in-2020>(검색일 2020.02.04.)

Tehusjarana, Karina M. 2019. “The Main Thing is not the Process, but the Result: Jokowi’s Full Inauguration Speech.” *Jakarta Post*. October 20.

Winters, Jeffrey A. 2013. “Oligarchy and Democracy in Indonesia.” *Indonesia* 96: 11-33.

Yew-Foong, Hui, Supriatma, Made, Dewayanti, Aninda and Hu, Benjamin. 2019. “Preview of 2019 Indonesian Elections.” *Perspective* 24.

(2020.01.22. 투고, 2020.01.22. 심사, 2020.04.28. 게재확정)

<Abstract>

## Indonesia 2019: Indonesia's Rightward Tilt?

LEE Jihyouk

(The Center For Social Science in SNU)

Throughout the last year(2019), Indonesia revealed 'dynamic' aspects of Indonesian politics. In a sense, the word 'dynamic' has positive connotations but 'dynamic' in politics is likely to be interpreted as lack of stability and lack of constant direction, namely, high uncertainty. Recently Indonesia's democracy is becoming more conservative and rather unpredictable. The election campaigns, as well as the election's aftermath, were highly divisive due to the prevalence of religious-based identity politics and the political polarization of the candidates' supporters. Indonesia's House of Representatives(DPR) passed the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KPK) bill into law on 5 September 2019, which curtailed the investigative powers of KPK. Also Indonesian lawmakers began debating controversial changes to the country's criminal code. Thousands of students including citizens took to the street to protest against planned revisions of the Criminal Code and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laws. Even before the public had not finished the protest against the controversial bills, the plan on the drafting of a new law that was beyond public expectations



suddenly popped up again. In the economic sector, the Indonesian government came up with the omnibus law to boost investment attraction and improve the investment environment. The laws aim to package multiple, unrelated areas of legislation that can be agreed with a single vote.

It seems that recent Indonesian politics is becoming less predictable, but it presents a clear direction in the big picture. President Jokowi is running state affairs with more emphasis on economic growth than political reform and consolidating democracy. President Jokowi and the government have been pursuing policies that may tolerate political conservatism and a setback in democracy for economic growth.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major issues of 2019 in Indonesia from a political and economic perspective and examine the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each issue. It also examines how the Jokowi government, which has just begun its second term, can strike a balance between its daunting missions such as economic stability and political reform, democratic consolidation and economic growth.

**Key Words:** Election, Identity Politics, Conservative Swing, Revision of KPK Law, Revision of Criminal Law, Relocation of the Capital City, Omnibus Law.

